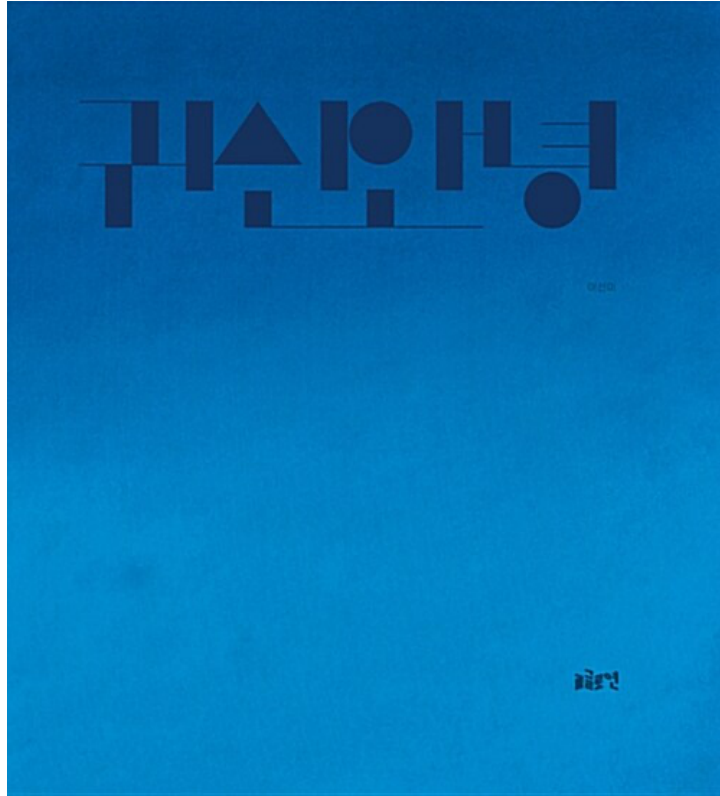


# 귀신안녕

이선미 글·그림



|          |                                                                                                                                                                                                                         |
|----------|-------------------------------------------------------------------------------------------------------------------------------------------------------------------------------------------------------------------------|
| 주제       | 그림책을 읽고 두려워하는 것과 친해지기                                                                                                                                                                                                   |
| 권장 차시    | 4차시                                                                                                                                                                                                                     |
| 대상 학년    | 전학년                                                                                                                                                                                                                     |
| 관련 주제어   | 두려움, 불안, 무서움, 용기, 감정, 표현, 놀이, 책 만들기                                                                                                                                                                                     |
| 교육 과정 연계 | 국어<br>[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br>[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br>[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br>[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br>[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
| 작성       | 창원 북면초등학교 손희선 선생님                                                                                                                                                                                                       |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깜깜한 밤이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 꿈쩍도 못하는 아이. 목이 말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아이는 꼭 잠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신이 서성거리고 있을 것만 같아 너무 무섭기 때문이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귀신을 겁내던 아이는 자신이 왜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불을 박차고 어둠의 세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해나갑니다. 귀신의 뽀족한 손톱을 깎아주고 헝클어진 긴 머리를 자신처럼 양 갈래로 묶어주면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큰 숨을 들이쉬고 귀신을 마주봤더니, 무섭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귀신놀이 할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아이는 귀신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귀신처럼 풀어헤치고 진짜 귀신을 향해 무섭게 다가갑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에 어이가 없는 귀신은 평소보다 더 무섭게도 해보지만 더 이상 아이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라니! 귀신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겠지요? 화가 난 귀신은 자신을 무서워할 또 다른 아이를 찾아 떠나고 맙니다.

귀신이 사라진 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린 아이는 이제 깜깜한 밤이 아니라,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으로 밤을 맞게 됩니다.

## ■ 학습 목표

-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두려워하는 것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표현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파란 표지에 투명하게 쓰인 ‘귀신안녕’이라는 제목이 매력적이다. 표지의 제목과 으스스한 느낌이 궁금증을 유발한다. 어떤 존재나 상황, 물건 등에 대해 갖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귀신이 두려움의 대상이다. 주인공 아이는 무서운 존재와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찾아본다. 두려움을 문장으로 표현해 친구들에게 퀴즈도 내보고, 그것과 마주해본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받는 활동을 한다. 두려움과 안녕할 수 있는 용기를 담은 나만의 책을 만들고 감상하며 서로를 격려해주면 좋겠다.

### 수업 준비물

빈 의자, 모형 마이크, 검은색 도화지(또는 흰색 도화지), 크레파스, 포스트잇

## ■ 학습 과정

| 주요 활동 |                                                      | 차시  |
|-------|------------------------------------------------------|-----|
| 읽기 전  | 표지 읽기<br>내용 예상하기                                     | 1차시 |
| 읽는 중  | 함께 그림책 읽기 1<br>'나의 두려움을 알아 맞혀봐!' 놀이하기<br>함께 그림책 읽기 2 |     |
| 읽은 후  | '두려움을 표현해봐!' 놀이하기<br>'두려움 안녕' 책 만들기<br>서로의 책 감상하기    | 3차시 |

### 읽기 전

#### 1. 표지 읽기

- (제목을 가린 앞표지를 보여주고) 표지의 느낌이나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예: 파란색을 보니 바다가 떠올라요.

뭔가 추운 느낌이 들어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 \* 제목을 가리고 보여줄 때 책등에 있는 제목이 눈에 잘 보이므로 함께 가린다.

#### 2. 내용 예상하기

- (뒤표지를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나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투명하게 반짝거리는 것이 보여요.

여자아이 얼굴이에요!

- 제목과 함께 표지 전체를 보여주며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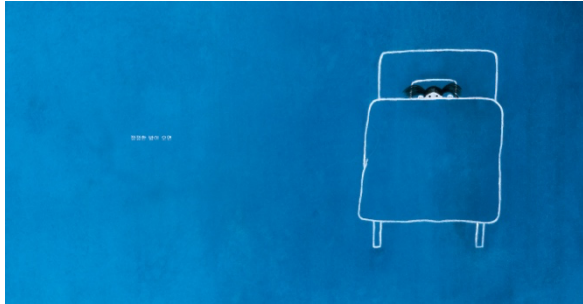
-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 책에 무엇이 등장할 것 같나요?  
뒤표지에 있는 얼굴은 누구일까요?  
'귀신 안녕' 제목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귀신을 본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나요?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 읽는 중

### 1. 함께 그림책 읽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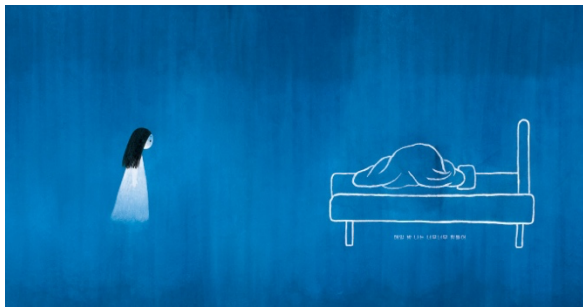
-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떠올리며 그림책을 함께 읽어 봅시다.



예: ('깜깜한 밤이 오면' 장면을 읽고) 여러분은 깜깜한 밤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어요.  
어두워서 무서워요.  
게임을 하고 놀고 싶어요.

\* 글밥이 적은 그림책이지만 장면마다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나누며 천천히 읽으면 좋다.

- '매일 밤 나는 너무나 힘들어.' 장면까지 읽은 후 놀이를 준비한다.



\* 이불 속에 아이의 표정이나 다음 장면을 상상하는 활동을 해보아도 재미있다.

### 2. '나의 두려움을 알아 맞춰봐!' 놀이하기

- 여러분은 언제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떠올려 문장으로 표현해봅시다.

예: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소리 지를 때 겁나요.

내 옆에 벌레(거미)가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요.  
혼자 어두운 곳을 걸어갈 때 진짜 두려워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두려워요.  
공원에 갔는데 개가 옆에 오면 무서워요.

- 선생님이 준 빈 종이에 내가 가진 두려움을 문장으로 적어 봅시다.
- \* '두려움 안녕' 책을 만들 때 붙일 수 있도록 크기에 맞는 종이를 준비한다.
-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친구에게 동작이나 상황으로 퀴즈를 낸다.
- \* 글자 수, 초성 힌트를 미리 생각하게 해서 답을 알아맞히지 못할 때 힌트를 준다.

### 3. 함께 그림책 읽기 2

- 귀신이 무섭고 두려웠던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림책을 더 읽어봅시다.
- 책을 읽고 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눠봅시다.

예: 아이가 귀신 손톱을 깎아주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귀신이랑 귀신 놀이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귀신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을 이겨낸 아이가 대단해요.  
귀신보다 좀비가 더 무서워요.

## 읽은 후

### 1. '두려움을 표현해봐!' 놀이하기

- '두려움을 표현해봐!' 놀이하면서 각자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 ① 빈 의자(원마커-위치를 정할 수 있는 물건 아무거나)를 하나 준비한다.
  - ② 의자에 앉은 친구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 것처럼 표현한다.

예: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운 대상이라면 내가 엄마가 되어 잔소리하는 모습을 표현하면 된다.
  - \* 자신의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표현하며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 표현이 어렵다면 큰 종이에 써서 들고 있어도 된다.
  - ③ 나머지 친구들은 의자에 있는 대상이 두렵거나 무서운 만큼 떨어지면 된다.

예: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우면 멀리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이 선다.
  - ④ 교사가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예: 이것과 마주했을 때 나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여주세요.  
왜 멀리(가까이) 서 있나요?  
왜 무서울까요? 왜 두렵지 않나요?  
처음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무섭지 않았나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엄마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추천해줄 친구 있나요?

‘엄마의 잔소리’를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함께 격려해주세요.

- ⑤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한 후 의자에 있는 아이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물어본다.

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 인터뷰할 때 모형 마이크를 활용하면 집중이 잘 된다.

- ⑥ 인터뷰가 끝나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다시 움직여 거리로 표현한다. 변화가 있는 아이를 또 인터뷰해도 좋다.

- ⑦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놀이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2. '두려움 안녕' 책 만들기

■ 귀신과 친해지며 두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처럼 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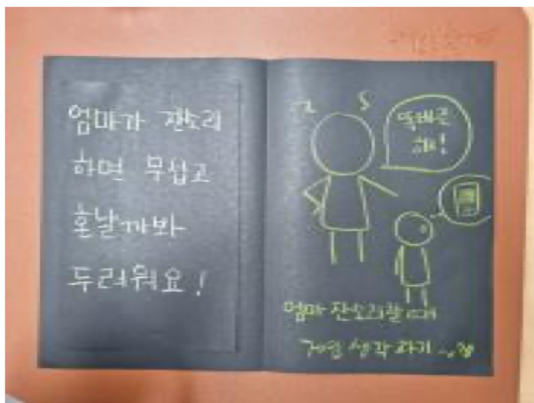


- ① 검은 도화지(혹은 흰 도화지)를 준비한다.

- ②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 책처럼 만든다.

- ③ 앞표지에 검은 크레파스(흰 도화지라면 흰색 크레파스)로 두려움의 대상과 ‘안녕’을 붙여 제목을 쓴다.

예: 엄마의 잔소리 안녕, 거미 안녕, 주사 안녕, 받아쓰기 안녕, 높은 곳 안녕, 개 안녕, 벌레 안녕, 아빠의 폭력 안녕, 케이 블카 안녕, 혼자 있기 안녕



- ④ 첫 쪽에는 그림책을 읽는 중 썼던 내가 느낀 두려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붙인다.

\* 만약 다른 두려움의 내용으로 책을 쓴다면 다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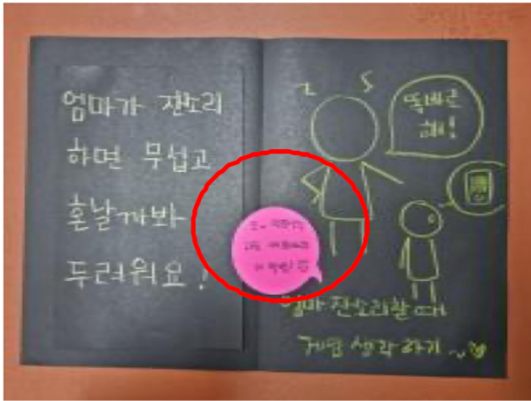
- ⑤ 남은 쪽에는 내가 가진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용기를 붙여넣는 말을 넣어 그림과 문장으로 표현한다.

\* 잘 보이는 크레파스 색을 골라 꾸민다. 검은 도화지라면 흰색이나 노란색 크레파스를 사용한다.

Tip. 학급 운영 예산이 있다면 라이트 매직 시크릿 펜을 준비해서 실제 그림책처럼 파란 종이에 글자를 쓰는 활동을 해 봐도 좋겠다. 시크릿 펜으로 글자를 쓰면 바로는 보이지 않는다. 펜 끝에 있는 불빛을 비추면 숨은 글자가 보인다. 표지에 제목을 쓸 때 활용하면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더 끌 수 있다.

### 3. 서로의 책 감상하기

■ 친구의 책을 감상하고 격려의 한 마디를 써서 붙여봅시다.



예: 나도 예전에는 개를 무서워했는데, 애견 카페에 다녀오고 나서 조금 나아졌어!

나는 엄마가 잔소리할 때 핸드폰 게임 하는 것을 상상해.

용기가 나는 멋진 방법이야. 응원해!

나도 받아쓰기하기 전에 너무 무섭고 싫어. 오늘 마지막 시험이야, 힘내!

\* 친구의 두려움에 공감하는 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격려하는 말을 생각하여 포스트잇을 활용해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

■ 서로의 책을 바꿔 읽은 소감을 나눠봅시다.

예: 나랑 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어서 공감되었어요!

친구가 적어 준 쪽지에 있는 격려가 고마웠어요.

내가 싫어했던 거미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주사 맞을 때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요.